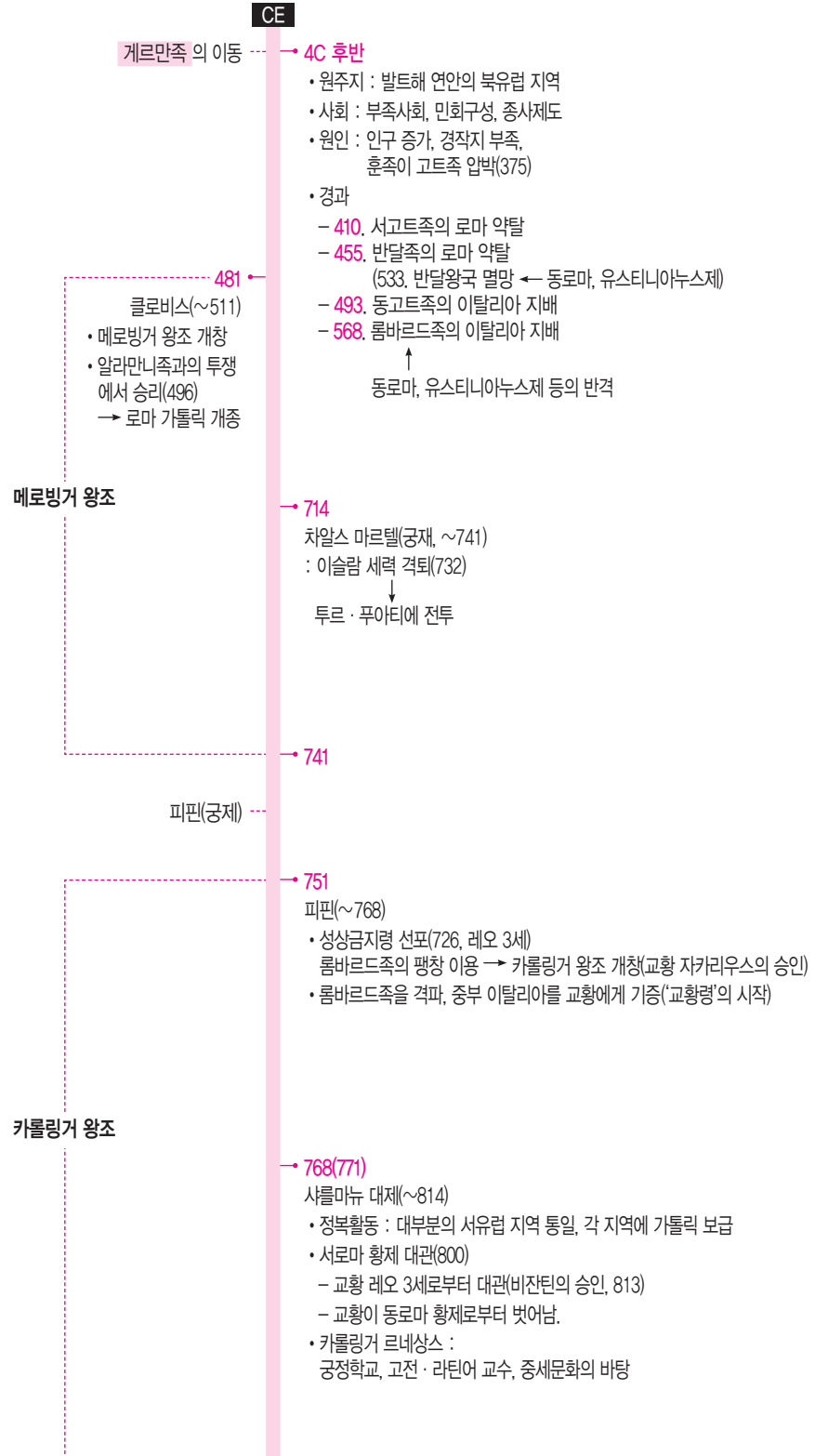




→ 814
루이 경건왕(~840)

프랑크 왕국의 분열
(원인 : 샤를마뉴 사후의 내분과 분할상속제도)

→ 843
베르됭 조약

분열 — 동프랑크 : 루이 독일왕(843~876)
서프랑크 : 찰스 대머리왕(843~877)
중프랑크 : 로테르(840~855)

→ 870
메르센 조약
: 동서프랑크가 이탈리아 북부를 제외한 중프랑크 분할
→ 동·서프랑크와 이탈리아 형성(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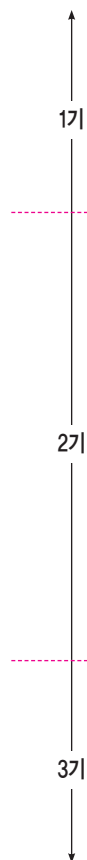
2차 민족 이동
(9C 후반~10C)

→ 노르만족

①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북유럽
② 이동 : 노르망디 공국 형성, 영국 정복(1066),
시칠리아 왕국, 노브고로드 공국 건설

• 기타 :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 결과 : 유럽 안정 파괴 → 사회 봉건화 촉진



→ 474

동로마의 비잔틴화

‘양화성’에 중점

외화성 내화성
(헬레니즘 세계) (그리스 문화)

→ 527~565

유스티니아누스 1세 시대

- 로마법전 편찬
- 성 소피아 대성당 설립
- 영토확장(소아시아~발칸반도)

→ 610~641

헤라클리우스 황제 시대

- 국력 재집결
- 제국 군관구제 실시

→ 717~718

이슬람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에 침입

→ 왕 레오 3세 격퇴 이후 외세의 계속된 침입

→ 867~1057

마케도니아 왕조 → 부흥기

: 영토확장 → 대토지 보유의 증가

→ 소농층과 병사 보유지의 잠식

→ 용병 재등장 → 호족반란

→ 976~1025

황제 바실리오 2세 시대

: 불가르인 국가 침공 정복

→ 11C 말

국내문제와 외침으로 쇠퇴

→ 셀주크투르크족의 팽창 vs 비잔틴

십자군 전쟁

• 1095

- 알렉시우스 1세가 교황에 지원 요청
- 십자군 전쟁 시작
- : 클레르몽 공의회, 우르반 2세 교황 십자군 제창

• 1096~1099

- 제1회 십자군 전쟁
- : 예루살렘에 십자군 왕국 건설

• 1147~1149

- 제2회 십자군 전쟁
- : 프랑스 루이 7세 + 독일 콘라드 3세
- 실패

• 1189~1192

- 제3회 십자군 전쟁
- : '왕들의 십자군'

• 1202~1204

- 제4회 십자군 전쟁
- 베네치아 상인에 의한 콘스탄티노플 교역권 장악에 대한 원정 → 상권 쟁탈전
- 라틴제국 성립(베네치아 상인)

• 1212

- '어린이 십자군'
- : 노예로 팔리거나 바다에서 난파

• 1217(6차:1228)~1291

- 제5~8회 십자군 전쟁
- : 비잔틴 제국의 약화 초래

• 1453

- 비잔틴 제국의 멸망(오스만 제국에 의해)

중세교회의 발전과 쇠퇴

CE

→ 4C

예수의 탄생

→ **크리스티교의 성립**

- 로마 제정 초기에 성립
- 유대교의 배타성 · 율법주의 배경
- 베드로, 바울 등이 로마제국에 전파 (61년경)

--- **크리스티교의 성장 · 발전** ---

초기) 황제 숭배 거부, 비밀집회
의혹 등 로마제국의 박해

→ 313

크리스티교 공인(밀라노 칙령)
▲ 콘스탄티누스

→ 325

니케아 공의회
• 교리의 통일
•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 채택
• 아리우스파 배격

→ 381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 삼위일체설 정통 확인
• 아리우스파를 이단 규정

4C 말 '교부철학' 성립

- 플라톤, 스토아 철학의 영향,
초기 정통교리 확립 도모
- 『신국론』: 성 아우구스티누스(354~430)
 - 그리스도교적 역사관 제시
 - '지상의 나라'에 대한 '신의 나라'의 승리로 인류역사 종결 주장
(고대적 순환 사관 탈피, 역동적 역사관)

--- 세계적 종교로의 발전 토대 ---

→ 392

국교화
▲ 테오도시우스 황제

→ 431

에페수스 공의회

→ 451

칼케돈 공의회

--- **중세교회의 성쇠** ---

- 교세 확대와 수도원 운동
- 중세교회의 성장: 봉건 영주의 지지 등
- 성직 계서제: 교황, 주교 등 계층구조
- 교회의 세속화

→ 6C 초

수도원 운동

- 성 베네딕트 수도원
- 수도원의 시초
- 베네딕트 계율 제정 (청빈, 정결, 복종)
- 노동 · 종교 · 문화생활, 자급자족

원인

→ 726

성상금지령(레오 3세)

→ 910

클뤼니 수도원

- 아퀴텐느 공 윌리엄의 승인장을 바탕으로 성립
- 서유럽 전역에 세력 확산

→ 1049~1054

개혁운동 확산
(레오 9세)

교황권의 전성(11~13C)

→ 1054

동·서 교회의 분열

- 계기 : 동로마제국과의 갈등(교황권 간섭, 삼위일체설의 교리, 성상금지령 등), 샤를마뉴 대제에 의한 서유럽 문화권의 형성 등
- 결과 :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리·대립

→ 1073

교황 그레고리 7세 선출(클뤼니 수도원 출신)

성직 서임권 투쟁

- 배경 : 국왕의 주교 지명, 서임
- 카노사의 굴욕
- 영국 - 성 안셀모와 헨리 1세의 타협, 교황의 승인/프랑스도 유사
 - ① 주교 선임은 교회가 하되, 주교는 왕에게 신서해야 함(봉토 수여).
 - ② 국왕은 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주교 선출에 발언권 행사 가능
- 독일 - 보름스협약(1122)
 - ① 영국, 프랑스와 유사
 - ② 국왕이 주교 선출에 직접 참여

→ 1077

카노사의 굴욕

: 황제 하인리히 4세가 교황권(그레고리 7세)의 우위 인정

십자군 전쟁

• 1096
1차(~1099)

• 1147
2차(~1149)

• 1189
3차(~1192)

• 1198
교황권의 극성기
↓
인노켄티우스 3세(1198~1216)

원인 { 유럽사회의 팽창욕(사회안정, 인구증가, 생산력 향상)
셀주크투르크의 강성 →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위협
동로마의 구원 요청 : 교황 우르반 2세, 성지회복 호소

• 1202
4차(~1204)

• 1212
소년십자군 결성

• 1217
5차(~1221)

• 1228
6차(~1229)

• 1249
7차(~1254)

• 1270
8차(~1272)

클레르몽 공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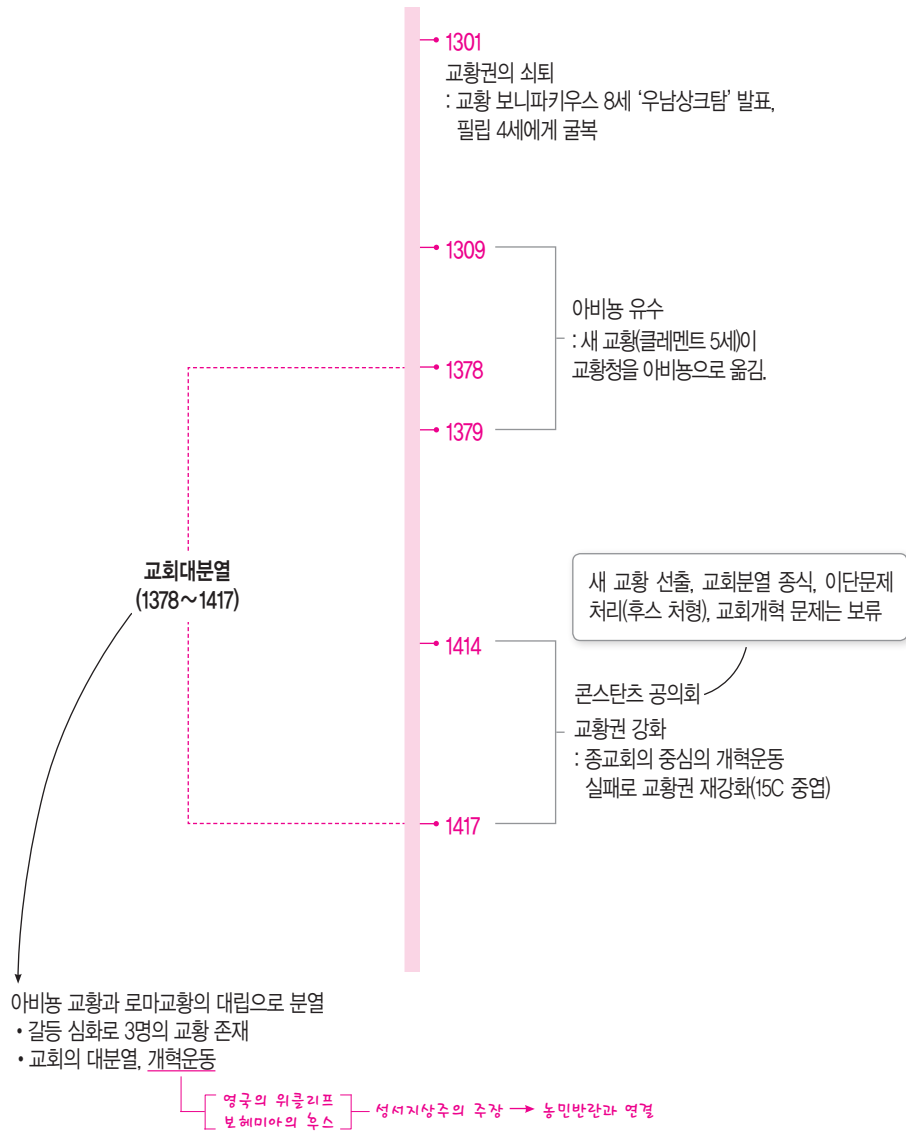
경과 : 전후 8회 원정 실시, 실패

- 1회 원정 때 예루살렘 왕국 건설(1099)
- 4회 이후 세속적 목적으로 이용 · 변질
↳ 라틴제국 건설

스콜라 철학 : 신앙과 이성의 관계 규명

보편논쟁 대두(12C 초) : 실재론/유명론, 아벨라르-『긍정과 부정』

- 신앙 우위 - 초기 안셀무스(실재론)
- 조화 - 중기 토마스 아퀴나스(13C, 전성기) : 『신학대전』
- 이성 우위 - 말기 스코터스, 오컴(유명론)



영국의 발전



플랜타지네트 왕조

영국 의회

- 의회 : 'parliamentum' 두 사람 이상의 협의 (parley)에서 유래 → 1240년대 '왕실대회의'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
- 기원 : 위탄회의 + 왕실대회의 + 주법정 등의 결합으로 성립
- 시몽 드 몽포르의 의회(1265) :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한 최초의 의회(각 주의 2명 기사, 자치도시의 2명 시민대표 선출 + 귀족 · 고위성직자)
→ 구속력이 약하였고, 전국적 대표가 없었음.

에드워드 1세의 의회

- 모범의회(1295) : 참된 의미의 영국 의회의 기원
- 1297년 소집된 의회는 에드워드가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 부과한 것에 대한 저항
- 상 · 하의원 분리(에드워드 3세, 1341)
- 의회권한 증대(헨리 4세)
 -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권, 개회 중 신체 자유 보장
 - 의회를 통한 법령에 대한 국왕의 내용 수정 불가능
 - 왕위 계승에 관여

→ 1154

→ 1189

- 리처드 1세 즉위
- 사자심왕
- 제3차 십자군 가담

→ 1199

- 존왕(~1216)
- 왕실 수입 증대 도모
- 대륙의 영토 상실
- 봉건귀족과 시민계급의 봉기
(런던 점령) → '대헌장' 승인(1215)
- ↳ 입헌정통의 기초 마련(국왕도 법에 종속)
 - ↳ 영국 의회의 과세에 대한 통제권 기초
 - ↳ 개인의 자유의 토대 및 배심제도 보장

→ 1216

- 헨리 3세
- : 귀족들의 반발 ← 격퇴 왕자 에드워드
- 레스터백(伯) 시몽 드 몽포르 등 귀족세력의 성장

→ 1265

- 시몽 드 몽포르의 의회

→ 1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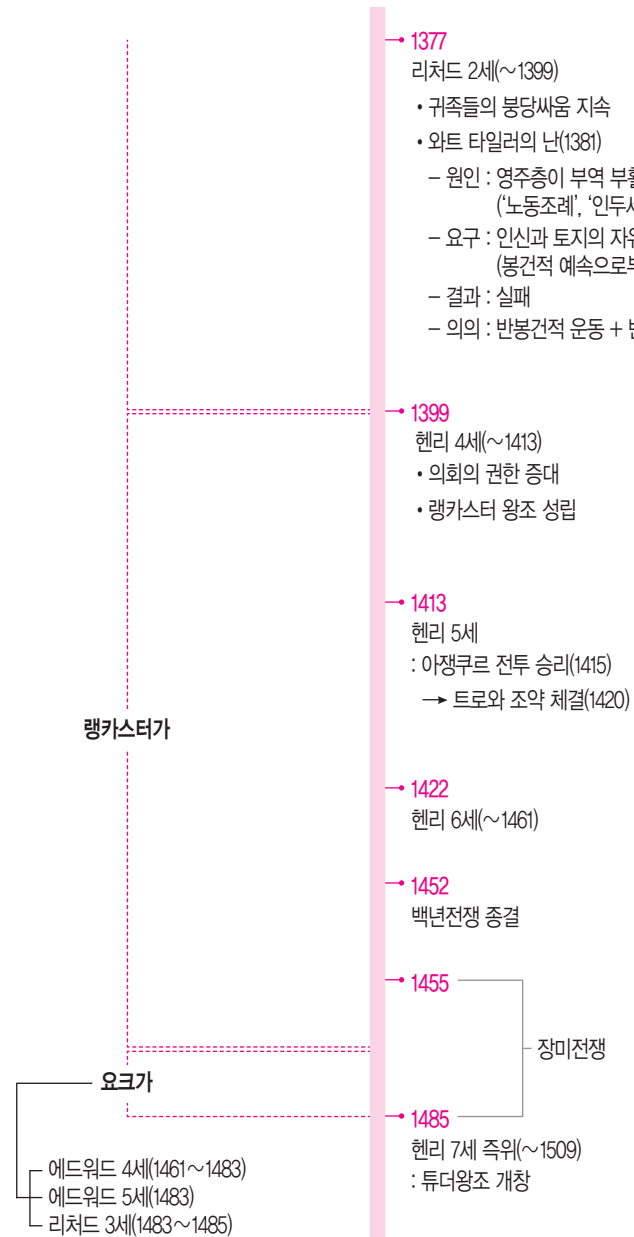
- 에드워드 1세(~1307)
- 국왕의 행정 · 재정 강화
- 재판권 강화 : 민사재판소 / 왕좌재판소
- 웨일즈 지방 정복, 국왕 통치하에 편입
- 스코틀랜드의 저항(독립 유지)
- 모범의회(1295)

→ 1327

- 에드워드 3세(~1377)
- 의회의 발전 : 상 · 하의원 분리, 의회권한 강화
- 치안판사의 설치(1329) : 중죄인 재판, 젠트리 계층이 다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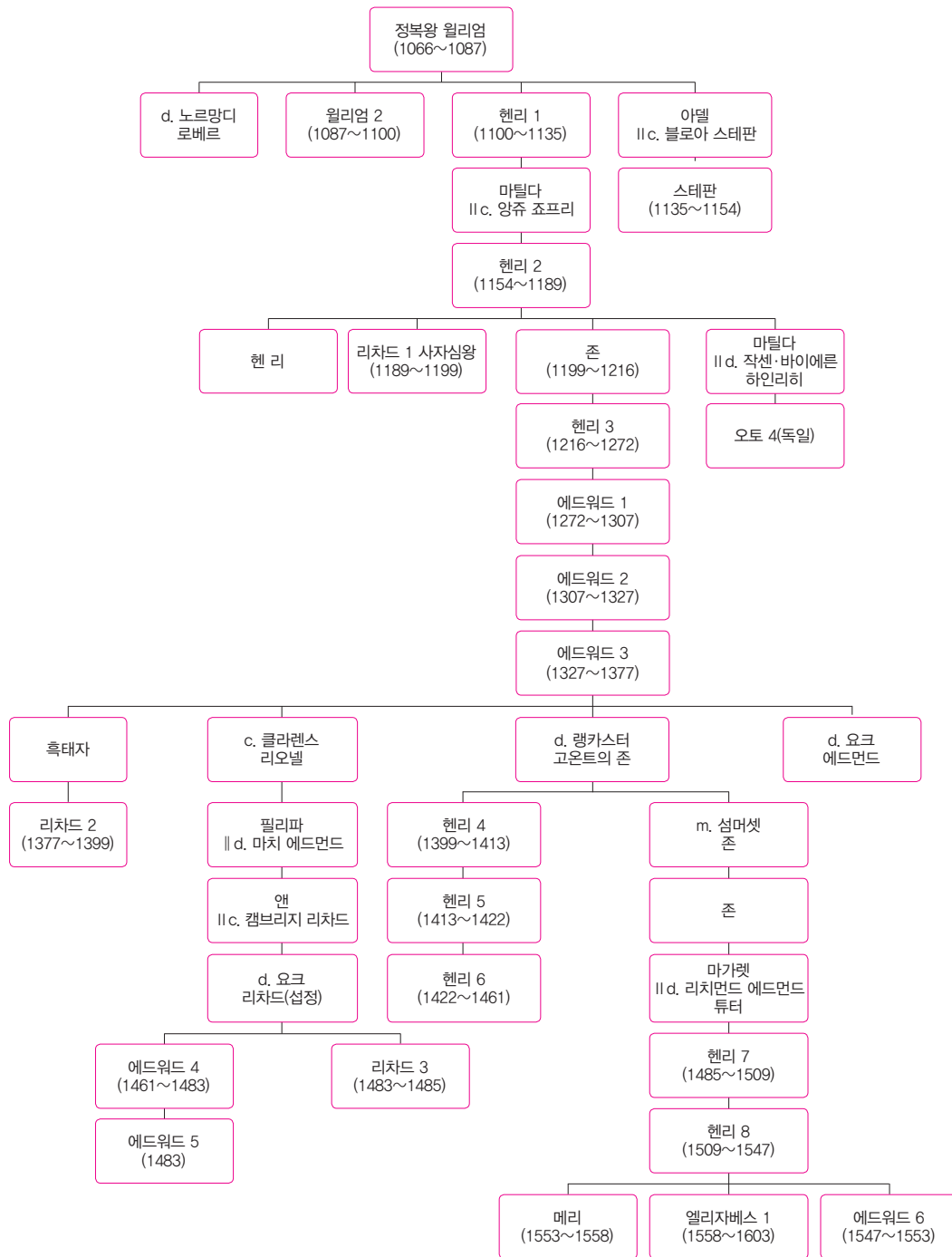
→ 1337

- 백년전쟁(~1452)



장미전쟁

- 의사봉건제도(급료를 매개로 한 사적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한 왕위 계승 전쟁
- 랭카스터가(적장미) vs 요크가(백장미)
- 랭카스터가의 승리/젠트리와 시민계급의 갈망을 바탕으로 왕권 강화



CE

서프랑크

986~987

루이 5세 : 이 왕을 끝으로 카롤링거 왕통 단절

987

유그 카페 즉위(~996)

- 카페 왕조 성립
- 초기 : 왕권 약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일-드-프랑스 공령' 지배

1060

필립 1세(~1108) : 왕권 매우 미약

1108

루이 6세(~1137) : 왕권 발전의 기초 제공

→ 대제후인 아퀴텐 공, 플랑드르 백의 신종 서약

1137

루이 7세(~1180) : 제2차 십자군 가담

1180

필립 2세(존엄왕, ~1223)

- 영국의 존왕으로부터 프랑스 내의 영국령 부분적 수복 (노르망디, 메인, 앙주, 투레인)
- 바이이(시민계급 출신), 세네샬(기사 출신) 등 지방행정관 창설
→ 왕권의 비약적인 발전
- 제3차 십자군 참가

카페 왕조(987~1328)

1207~1229

- 남부 프랑스(랑그독, 프로방스 등) 왕령에 편입
- 알비즈와 십자군의 활약

1226

성왕 루이 9세(~1270)

- 감찰관을 파견하여 바이이 등을 감독
- 파리에 항구적인 법정 '고등법원' 설치
- 제7회 십자군 원정 때 포로로 감함(1249). → 타국에서 병사

1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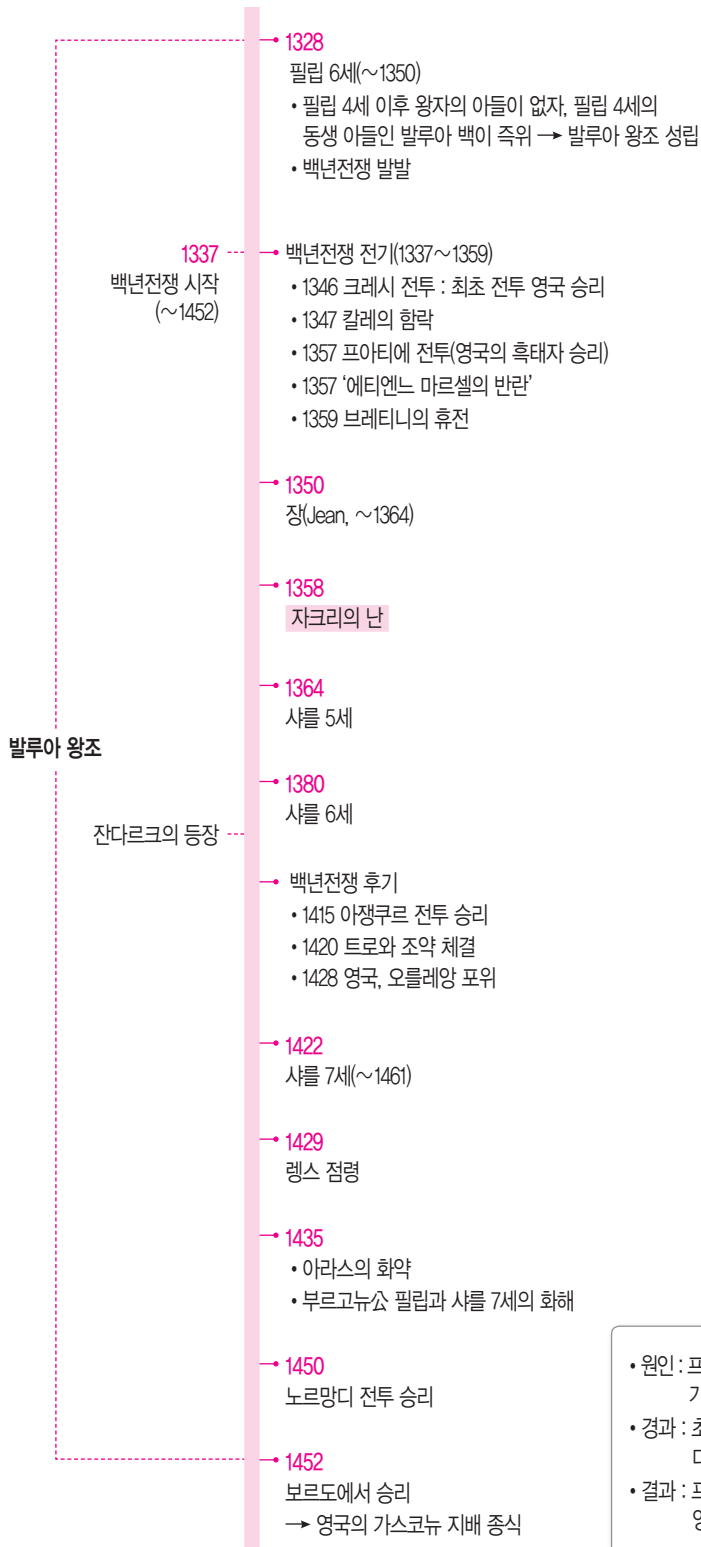
필립 3세

1285

필립 4세(~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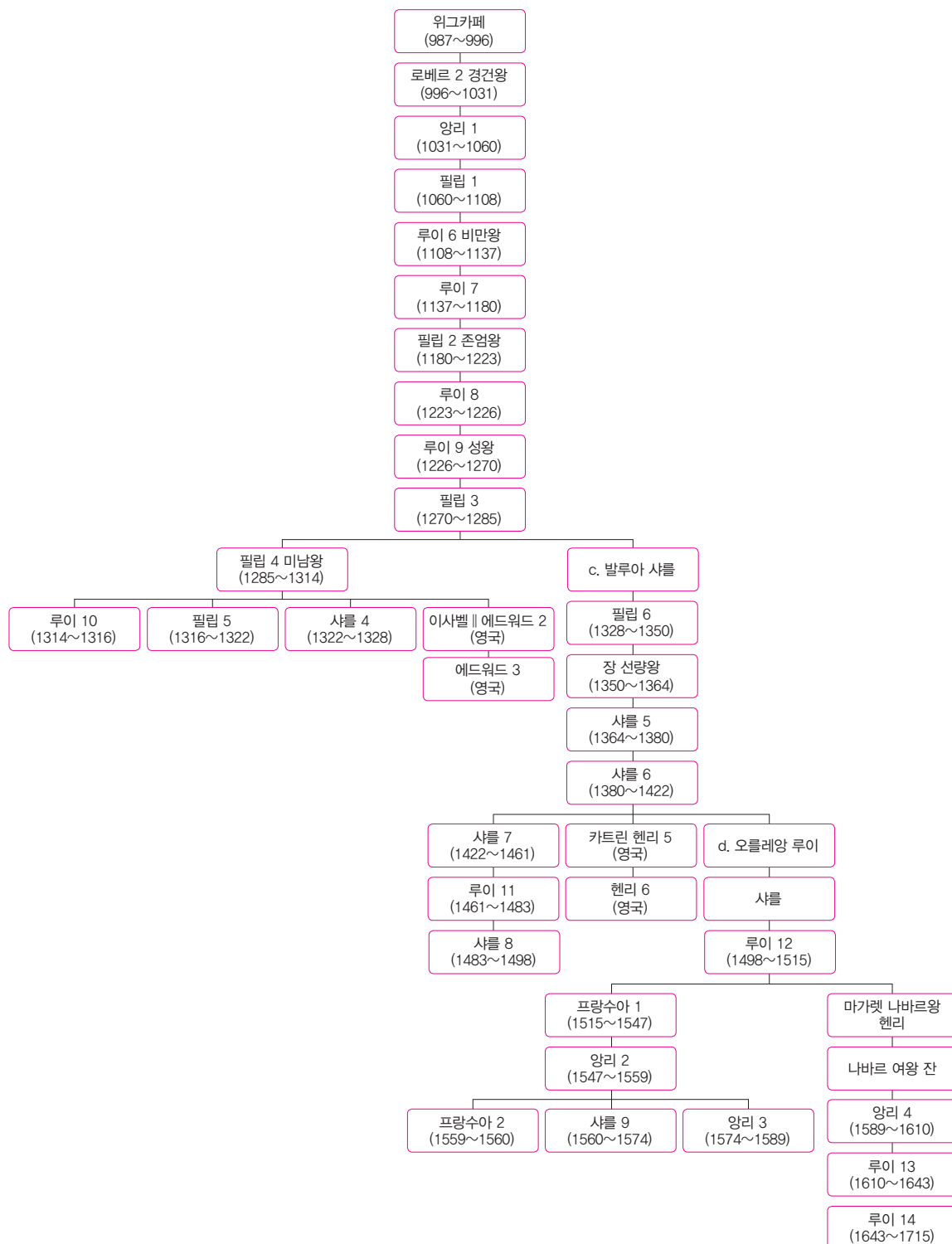
- 고등법원의 기능과 조직 강화
- 왕실재정 담당 : 회계원 창설
- 국왕자문기구 : 왕실 평의회 설치
- 관료제의 성장 : 바이이, 세네샬의 수 증가
- 삼부회 설립(1302) : 성직자, 귀족, 제3신분(도시대표)
 -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의 투쟁에서 국민 전체의 지지 획득 도모
 - 도시와 시민계급의 경제적 · 정치적 성장 반영
 - 주로 북부만을 대표, 남부 및 일부 지방에서 독자적 삼부회 병존

1328



백년전쟁(1337~1452)

- 원인 :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발루아 왕조 성립, 1328~1589), 가스코뉴-플랑드르 지방의 영유권 문제
- 경과 : 초기에 영국의 장군보병 우세 → 후기에 프랑스의 잔다르크 활약
- 결과 : 프랑스의 승리(대부분의 영토 회복), 양 국가의 봉건 영주 몰락, 중앙집권국가의 형성, 민족의식의 성장



신성로마제국의 발전



호엔슈타우펜 왕조

대공위 시대(1254~1273)

1152

프리드리히 1세(~1190)

- 호엔슈타우펜 왕조 개창
- 대제후에게 영지 내 자유재량권 인정, 대신 황제에 대한 신종 요구
- 이탈리아로 진출 → 롬바르디아 도시들과 화평 (중부 이탈리아로 세력 확장, 시칠리아와 친선 도모)
- 십자군 참가

1190

하인리히 6세(~1197)

- : 시칠리아 왕국에 영향력 확대
- 주요 직책에 독일인 관리 배치

1215

프리드리히 2세(~1250)

- : 제6회 십자군에 참가하여 이집트의 술탄과 협약
-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을 확보)
- 중부 이탈리아의 영토 침범한 교황 격퇴

1231

- '독일 제후의 이익을 위한 헌장'
- 멜피헌장

1250

콘라드 4세(~1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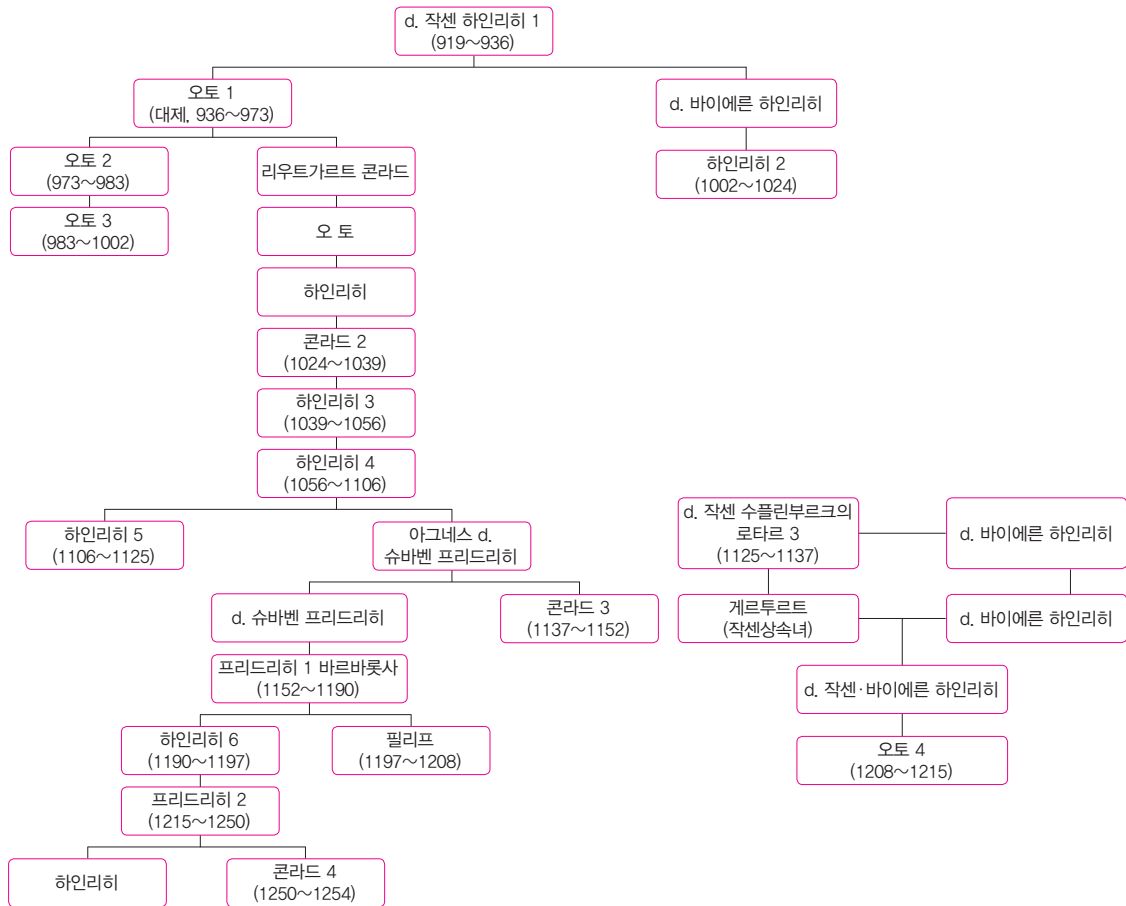
1254

1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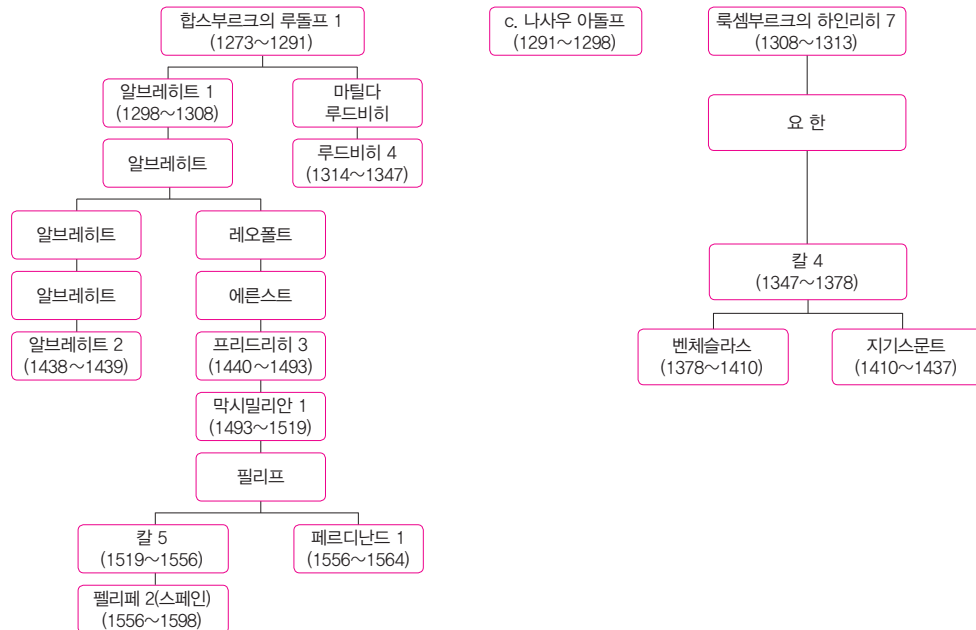
- '황금 칙서(1356)'를 통한 7선 제후가 황제 선출
- ↳ 황제 선출과 관련된 분쟁 발생 · 방지 내지 감소
- 황제권의 약화
- 이후 룩셈부르크가 → 15C 중엽(1440)
 -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에 정착
 - 신성로마제국이 소멸할 때까지 거의 세습적으로 계승

— 신분제 국가 형태의 영방 국가 성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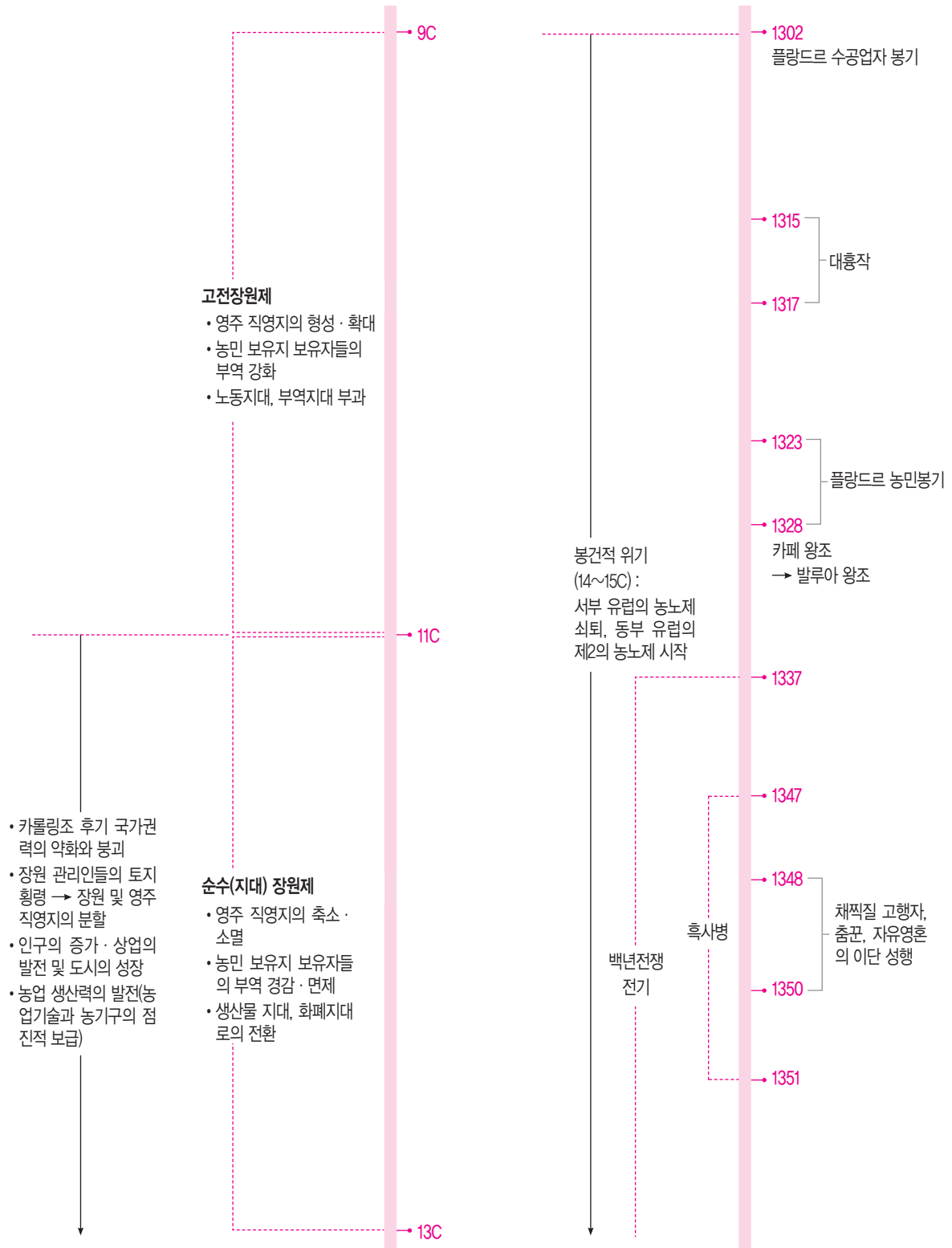
- ① 봉건 제후들의 영방고권(재판권, 관세징수권, 화폐주조권 등)을 장악하여 영방군주화함.
- ② 신분제 의회 장악 강화, 징세권 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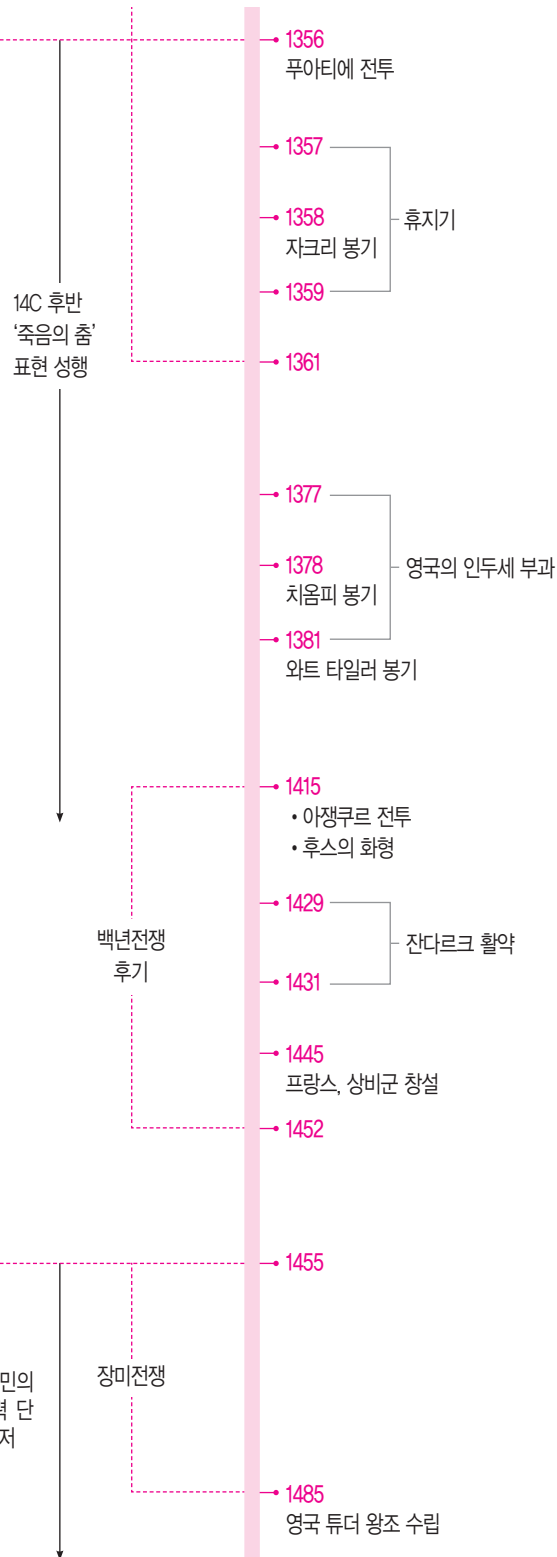


대공위 시대(1254~1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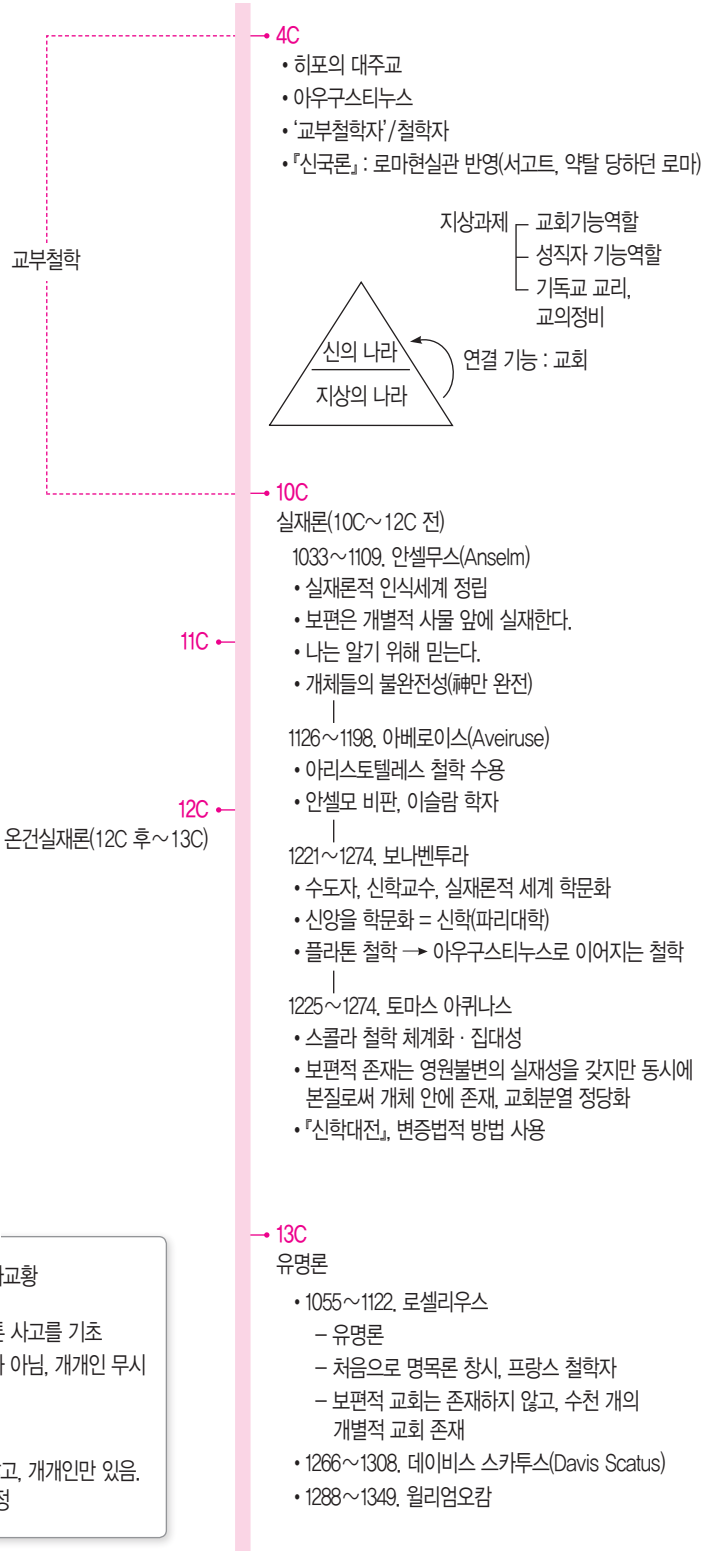


중세 봉건사회의 해체





중세철학의 발전



실재론 vs 유명론

서로마교황 (플라톤 idea/보편적 권위)	
실재론	보편적 개념은 실재, 플라톤 사고를 기초
	개별적 존재(개체)는 실재가 아님, 개개인 무시 (군주, 지역교회)
아리스토텔레스 기초	
유명론	보편적 개념은 실재하지 않고, 개개인만 있음.
	교황은 인간일 뿐, idea 부정

→ 3C

→ 5C

→ 11C

→ 12C

Rome 교부철학

이슬람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유입 → 이후 스콜라 철학 발전

↳ '주교성당'이나 '수도원 부속학교'가 기원

문제제기

신의 존재 증명 보편(普遍) 문제
실재론 : 보편개념이 실재한다.
유명론 : 보편적인 것은 오직 이름뿐이고, 실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다.

이성과 신앙의 조화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무스(St. Anselm)가 제시 → "나는 신앙을 위하여 지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하여 믿는다."

• 신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이성이 신앙보다 앞서지 못한다.

The Universal

예 • 장미 : 구체적인 것
아름다운 : 추상적인 것 } 둘 다 보편개념일 수 있다.

• 장미 { Red
White
Black } 감각적인 경험으로 인식

• 플라톤
form 또는 idea의 세계 : 이상
감각경험의 세계 : 현실
'모사(Mimesis)'에 불과하다.

'보편개념' [신학(神學)에서]

'보편'의 문제는 교의(敎義) Trinity의 문제 조명

-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존재하는가? : 유명
- 그 각각을 초월하는 하나의 신성한 본질이 있는가? : 실재

아벨라르(Peter Abelard)

롬바르(Peter Lombard)

- 12C 전반기 파리학계의 거장
- 보편적인 것은 실재하지만, 그것에 내재하는 개별적인 것을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것과 별개로 파악된 보편적 개념은 인간 지성의 추상적 산물
- 『긍정과 부정』 : 논쟁거리 제시 → 찬반 결론 → 전거 제시
- '회의를 통하여 탐구하게 되며, 탐구를 통하여 진리에 도달한다.'

- 아벨라르의 '변증법적 방법' 채택
- 『전거의 서』(1150) : 신학 강의용 교재

